

13. 섬 나들이 관문(關門) 조천관(朝天館)²⁷⁾

◎ 전통문화(傳統文化) 궁지도 이제는 간 곳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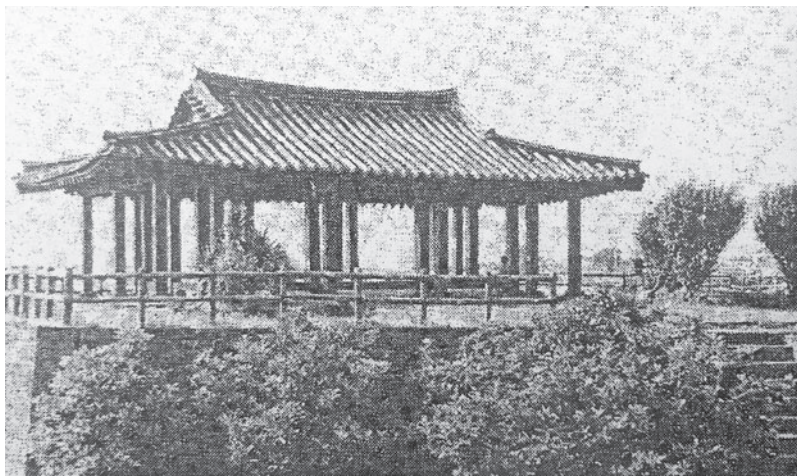
◎ 독립투사(獨立鬪士)와 뛰어난 인물 배출(輩出) 돼

제주섬이 열리던 아득한 옛날, 설문대할망이 섬사람들의 소원을 실현시켜 주려고 다리를 놓기 시작한 곳이 조천(朝天) 바닷가 영장메코지라고 한다. 이 연륙(連陸)의 꿈은 할망이 입을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명주 백 필 가운데 한 필이 모자라 무산돼버렸다고 전하고 있다.

진(秦)나라 서복(徐福)이 영주산을 찾아올 때 처음 이른 곳이 조천포(朝天浦)라고 하며 떠날 때는 서귀포(西歸浦)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곳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포구의 큰 바위에 조천석(朝天石)이라고 새겨놓았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다.

또 고후(高厚) 세 형제가 처음으로 신라에 조공을 바칠 때 그들은 이

27) 『한라일보』 제72호 (1989. 07. 15).



! 조천관(朝天館) 터에 외롭게 남은 연북정(戀北亭)! 옛 관문(關門)의 자취를 대변해 주고 있는 유일한 유적이다.

포구를 떠나 신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는 건입포(健入浦)로 들어왔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 모든 전설이 말해주는 것처럼 조천포는 이미 고대(古代)부터 제주도의 관문이었던 사실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조천석(朝天石)은 묻혀 버려

조천포를 옛날에는 조천관(朝天館)이라고 불렀다. 손님들이 묵는 객관(客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풍선이 다니던 시대였으므로 바람을 만날 때까지 손님들은 몇 날이고 이 객관에서 기다려야 했다.

조천(朝天)이라는 이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복(徐福)의 전설에 얽힌 것도 있지만 곽기수(郭期壽)의 「연북정중창기(戀北亭重創記)」를 보면



「조천진성과 연북정(제주시 조천리)」 고려시대부터 성이 있었으며, 1374년 박윤청 목사가 조천관을 창건하였다. 조선시대(1590년) 이옥 목사가 성을 중수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남동향의 성문이 하나 있다.

기후를 관측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침 하늘을 살핀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조천관을 처음 창건한 것은 1374년(공민왕 23) 박윤청(朴允淸) 목사당시로 알려지고 있다. 그 뒤 1590년(선조 23) 목사 이옥(李沃)이 조천관을 증축하면서 누각을 세웠는데 이름을 쌍벽정(雙碧亭)이라 했다. 푸른 산과 푸른 바다를 아울러 마주본다는 뜻이었다.

「조천리지(朝天里誌)」에 따르면 이 조천관 창건 공사 때 포구의 큰 바위에 새겨 있던 조천석도 그대로 묻혀버렸다고 한다.

1599년(선조 32)에는 목사 성윤문(成允文)이 다시 조천관을 중수하고 쌍벽정을 연북정(戀北亭)이라고 개편(改扁)하였다. 임금이 있고 벗과 가족이 있는 북쪽을 늘 그리며 기다린다는 뜻이다.



연복정(제주시 조천리) | 1590년 이옥 목사가 조천진성 밖의 객사를 성안에 옮겨 쌍벽정이라 이름 지었는데, 1599년 성윤문 목사가 연복정으로 바꾸었다. ‘연복’은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이다.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됨.

이 연복정은 1971년에 지방유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고 1973년에는 해체 복원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상량문이 나왔는데 1820년(순조 20) 2월 15일로 되어 있어 이때 해체공사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한 달 묵은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을 보면 1601년 안무어사(按撫御史)가 되어 내도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은 바람을 기다리노라고 한 달 동안을 이 조천관에 묵고 있다. 이 무료한 시간을 그는 시로 달래고 있다.

寥落朝天館	淹留到歲窮
朝朝對三老	日日問東風
鍾鼓占晴雨	山雲驗異同
中宵百慮絕	默坐禱天公 ²⁸⁾

쓸쓸히 조천관에 내려와
 길이 막혀 머문 지 어느새 연말이 되었네.
 아침마다 세 노인²⁹⁾을 대해서 놓고
 날마다 동풍이 불기를 물어보네.
 종과 북은 좋고 굶은 날씨를 점치고
 산허리에 구름은 같고 다른 것을 시험 하네.
 한밤에 모든 시름 다하니
 말없이 혼자 앉아 하느님께 빌었네.

조천포는 고대는 제쳐 두고라도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줄곧 제주도의 주교통향이었다.

28) 청음은 한시 말미에 “海邊老人 常看漢擎山雲氣 以占東風(해변의 노인들은 늘 한라산의 구름을 보고 동풍이 불 것인지 점친다.)”라고 주를 달고 있다.

29) 삼로(三老) : 노인을 나이에 따라 나눈 세 등급. 100세 노인을 상수(上壽), 80세 노인은 중수(中壽), 60세 노인은 하수(下壽)라 하였다. 또한 삼로는 원래 중국의 전국시대 이래 현(縣) 아래 조직인 향(鄉)의 우두머리에게 붙이던 명칭으로 소규모 공동체의 우두머리에게 준 칭호이다. 한편 중국 사서(史書)에서 옥저·동예지역 읍락의 통치자를 일컫던 명칭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옥저(沃沮)의 여러 읍락의 우두머리들은 스스로를 삼로라 일컬으니, 그것은 옛 현의 제도이다(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古縣國之制也).”라고 하였다.

“아다마노 조오펜”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화북포(禾北浦)도 함께 교통항이 되지만 여전히 섬의 관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목사나 관리 그리고 유배인들이 대체로 이 포구를 통하여 오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모두에게 조천관의 인상은 깊었다고 할 것이다.

조천은 조선시대 초부터 방호소(防護所)와 수전소(水戰所)가 아울러 설치되었던 곳으로 『탐라지(耽羅志)』를 보면 이때 조천성(朝天城)은 둘레가 4백 28척 높이가 9척이었으며 동쪽에 성문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 때 일인들이 들어와서 두드러진 마을에 별명을 붙였다.

이때 조천사람들을 가리켜 “아다마노 조오펜”(머리의 조천)이라고 했다. 이밖에 “우테노 다이세이”(뚝심 센 대정), “하라노 주우붕”(배짱 큰 중문)이 있었다. 중문은 합방 뒤 경비가 삼엄하던 1918년 주민들 4백여 명이 중문경찰주재소를 때려 부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일인들이 아주 혼비백산했던 것이다. 대정은 합방 전에 여러 차례의 민란이 여기서 일어났고 일인 어부들이 무장 침략했을 때는 몽둥이와 쥘을 들고 맞싸워 두려운 존재였다.

여기에 대하여 조천은 머리가 좋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 일제의 말이 먹혀들어 가지 않는 곳이었다.

각계를 움직이는 지도층 인사가 많았고 특히 독립투사들이 많아서 골치를 썩히는 고장이기도 했다. 3·1 운동 때도 독립만세의 첫 함성이 터진 게 바로 이 마을이었다. 이제 그 많은 인물들은 가버리고 전통만 남았다고 할 것이다.



↓ 조천 비석거리(제주시 조천리) ↓ 현재 김수익, 김응우, 오영 등 목사 및 판관의 옛 비석 총 9기가 동좌서향으로 소재하고 있다. 1976년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됨.

옛 것 사라지고 빗돌만

지금 조천관 터에는 연북정과 웅성(甕城) 잔지(殘址)만이 옛 자취를 일깨워 줄 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객관 건물들은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다.

연북정으로 들어서는 길목 비석거리에서 필자는 발을 멈춰 섰다.

인조(仁祖) 때의 목사 김수익(金壽翼)을 비롯하여 이원달(李源達), 이의식(李宜植), 백희수(白希洙), 채동건(蔡東健), 정기원(鄭岐源) 등 여섯 사람의 목사와 판관 김응우(金膺友), 공마감관(貢馬監官) 오영(吳永), 그리고 면장 김태호(金泰鎬) 등 모두 아홉 기의 옛 비가 줄지어 서있다. 이제 옛날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구나 싶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 비석거리 맞은편에는 향사(鄉舍)가 있었다. 지금



| 삼일독립운동기념탑(제주시 조천리) | 1919년 3월 21일 김시범 등 조천 청년들이 '미밀동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운동의 물꼬를 열었다.

그곳에 2층 슬러브조의 마을회관이 들어서있다. “회관이야 굳이 여기가 아니면...”하고 생각이 착착 해진다.

모든 마을이 그러드래도 “전통문화의 마을 조천까지도 이제 옛 문화를 동당이 쳐 버리는구나...”하는 아쉬움과 함께 돌아섰다.